

재주 많은 원숭이띠 스타들

2016년 인기몰이 짬!

엑소 찬열

‘대세 92라인’ 엑소 찬열·EXID 하니 등

‘전재 80라인’ H.O.T 이재원·지오디 손호영

‘전설 68라인’ 천만요정 오달수·설경구 등

지오디 손호영

잔나비띠로도 불리는 원숭이띠는 재주가 많고 영리하며 감각이 뛰어난 기질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연예계에는 원숭이띠 스타들이 유독 많다. H.O.T, 젝스키스, 지오디, 신화 등 1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를 비롯해 지금의 K팝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가수들까지 수가 많다. 배우와 개그맨 중에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누비는 굵직한 스타들과 뒤늦게 빛을 보며 인기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있다.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丙申年)년을 맞아 원숭이띠 스타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H.O.T·지오디부터 엑소까지…김태희·유세운도 원숭이띠

1992년생 스타들로는 지금의 K팝 한류를 이끄는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엑소의 찬열과 박현·첸을 비롯해 원더걸스의 선미와 헤림, 블랙비의 지코, 씨스타의 소유, 이엑스아이디의 하니, 제국의아이들의 김동준, 인피니트의 엘, 에프엑스의 엠바, FT아일랜드의 최민환, 비원에이포의 바로와 산들, 빅스의 켄, 위너의 이승훈, 애프터스쿨의 리지, 마마무의 문별 등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고 노래한 포미닛의 현아도 원숭이띠다.

소유는 “붉은 원숭이의 해가 상징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여러가지 일에 욕심내보고 싶다”며 “가수로서 훌쩍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 제 주변을 위해 의미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니도 “지난 해 목표는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는 ‘만족’이었다”며 “새로운 해를 맞이해

새운 목표는 ‘성장’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성장해 연말에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 제 모습을 발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우 중에는 가수 출신 소희와 한그루, 이달 영화 ‘오빠 생각’ 개봉을 앞둔 고아성, 2월 KBS 2TV ‘태양의 후예’ 출연하는 김지원 등이 있다.

1980년생으로는 1990년대 중후반 데뷔한 1세대 아이돌 가수를 비롯해 허리 역할을 하는 배우와 개그맨들이 주축이다.

H.O.T 출신 이재원, 젝스키스 출신 장수원·강성훈·고지용, 지오디의 손호영, 신화의 전진, 핑클 출신 옥주현·이진, NRG 출신 노유민 등이다. 이 밖에도 다이나믹듀오의 최자, ‘트로트 퀸’ 장윤정, 에픽하이의 타블로, 싱어송라이터 정기고 등이 동갑내기다.

배우 중에는 김태희를 비롯해 전정명, 류승범, 이동건, 진구, 이요원, 손태영 등의 스타들이 있다. 또 화제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이어 ‘응답하라 1988’에도 출연 중인 김성균, 드라마 ‘미생’으로 떠주말극 ‘부타해요 엄마’에서 주요 배역을 맡은 오민석, 영화 ‘건축학개론’의 ‘납작이’로 유명해져 승승장구 중인 조정석 등 늦깎이 스타들도 눈에 띈다.

각종 예능에서 ‘막방’을 보여준 인기 개그맨 김준현, 개그팀 ‘용달샘’ 멤버로 예능계 블루칩인 유세운과 유상무, 개그계의 여성 파워 신봉선도 나이가 같다.

◇스크린과 안방극장 스타들…박신양·오달수·설경구도 동갑

1968년생으로는 박신양, 이성민, 오달수, 설경구 등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종횡무진인 연기파 배우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새해에도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2013년 영화 ‘박수건달’ 이후 공백기이던 박신양은 오는 2월 케이블채널 예능 ‘배우 학교’로 안방극장에는 5년 만에 컴백한다. 드라마 ‘미생’의 스타인 이성민은 4월 방송될 드라마 ‘화정’이 차기작으로 예정돼 있다. 임팩트 있는 조연으로 영화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등 천만 영화에 잇달아 출연한 오달수도 올해 여러 편의 영화 출연작이 결정됐다. 올해 영화 ‘루시드 드림’의 개봉을 앞둔 설경구 역시 1968년생이다.

가수 중에는 1980년대 하이틴 스타인 ‘스잔’의 김승진, 1990년대 그룹 공일오비 출신 프로듀서 정석원 등이 있으며, 도박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탁재훈과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도 1968년생이다. 이들보다 12살 많은 1956년생으로는 유동근, 김영란, 이경진, 유지인 등 중견 배우들과 명 MC 이태림 등이 있다.

가수로는 지난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해은이와 1970~80년대 포크그룹 ‘따로 또 같이’ 출신 강인원, 히트곡 ‘사랑으로’로 유명한 포크그룹 해바라기의 이주호 등이 포진해 있다.

1944년생은 1세대 트로이카 배우이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부인으로 유명한 윤정희를 비롯해 케이블 채널 예능 ‘꽃보다 할배’의 스타 백일섭, 인기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출연 중인 이정길 등이 있다.



오달수

‘히말라야’의 힘

12월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역대 최고

60% 첫 돌파…전체 관객 수는 4년 만에 최소

‘히말라야’의 흥행 열기를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지난 12월 관객 점유율이 작년 처음으로 6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63.8%(1209만2510명)로, 역대 12월 한국영화 점유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2012년 53.7%, 2013년 56.8%, 2014년 59.6%로 올해 처음 60%를 넘겼다.

반면, 지난해 12월 관객 수는 1894만9525명으로 4년 만에 최소로 집계됐다. 역대 12월 관객 수는 2012년 2059만2201명, 2013년 2077만6444명, 2014년 2167만7009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은 4년 만에 최소 관객에, 4년 연속 성장도 멈췄다. 특히 작년 12월 연간 관객 수 비중은 8.7%로 역대 최저치다.

영화시장분석가 김형호 씨는 “지난해 역대 최저였던 9~11월 가을 시장의 여파가 12월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개봉작의 만족도가 기대보다 낮았다는 반응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반히 ‘국제시장’을 필두로 관객이 12~2월에 몰렸다면, 올해는 설날 기대작을 중심으로 2월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영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한국영화가 역대 최고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대 관람객(2억172만8864명)을 견인한 데에는 막판 ‘히말라야’의 힘이 컸다.

‘히말라야’는 개봉 18일째인 전날 관객 600만명을 돌파해 누적 관객 수가 608만2997명에 이르렀다. 개봉한 이래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고, 지난달 25일 74만6413명이 이 영화를 관람하며 기존 ‘변호인’(2013)이 가지고 있던 역대 크리스마스 최대 관객(64만624명)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물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는 전날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전 세계적인 흥행 열기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 애니메이션인 ‘몬스터 호텔 2’는 개봉 9일째인 전날 100만명을 돌파했고, ‘어린 왕자’는 이날 오전 관객 50만명을 넘어섰다.

연립뉴스



오늘 뭐 볼까?

TV 4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콧노랑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신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글로벌 과학 다큐멘터리 55 안녕 우리말	00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재)	00 그린실버 교황이 좋다	00 닥터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50 SBS12뉴스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12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45 닥터365 55 2016 신년기획 다시 호남을 말한다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생생정보 스페셜(재)	10 신년특집 사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2 00 콘서트 필(재) 50 야생일기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KBS 뉴스타임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식 위키	00 키즈 사이언스5(재)	15 이색직업 별나학교(재)
3 00 이언경의 직면직설	00 KBS 다큐1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캐드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한국인의 발상(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안녕 자두야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걸어서 세계 속으로(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 고	00 KBS 뉴스7 30 우리들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떠따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밀착토크 동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5 축구 올림픽 대표경기전 <대한민국 : UAE>
12 40 아내가 뽀났다 (재)	20 해외걸작 드라마 <설국 시즌3>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실맛나는 세상 스페셜	

EBS1

05:00 EBS에 생활 영어	09:40 부모-생활 보감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별명이 팡팡!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꼬마가사 마이크	18:55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05:40 요리비전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06:10 EBS 인문학 특강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크레임의 창의력 팡팡(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코코코 다코	20:40 다큐 오늘
07:45 로보가 폴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	16:45 당동당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	13:05 지식채널e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다채로움의 향연, 중국 구이저우)
08:1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13:10 프레임 인	17:45 로보가 폴리	21:30 한국기행
08:20 당동당 유치원 2	13:40 즐겨온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	(우리들의 천국 강원)
08:30 두다다콩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05 캐니멀	21:50 EBS 다큐 프라임
08:40 당동당 유치원 3	14:00 초등 1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2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2	22:45 달라졌어요
08:45 코코코 다코	14:20 초등 5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25 두키 탐험대	23:35 프레임 인
09:00 크레임의 창의력 팡팡	14:40 초등 3학년 EBS 겨울방학생활	18:4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3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4일(음 11월 25일 乙酉)

子

48년생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말고 내비쳐야 의미가 있다. 60년생 집적만으로 예산한다면 큰 코 다칠 수다. 72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하등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84년생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9, 89

丑

49년생 막연하다면 단계를 드러내게 된다. 61년생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 것이다. 73년생 의지가 확실하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85년생 기회로 활용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7, 70

寅

50년생 상태는 이미 다 알고 있느니라. 62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74년생 일관하게 추진한다면 이익이 있다. 86년생 명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진적으로 암하라. 행운의 숫자 : 50, 04

卯

51년생 과감하게 전환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 63년생 격정할 바가 아니니 요만 보고 나가도 된다. 75년생 같이 있어야 공조가 이루어지느니라. 87년생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외의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14, 51

辰

40년생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64년생 희소식을 듣게 된다. 76년생 단순한 비교는 불만만 더 할 뿐이다. 88년생 예기치 못한 판세로 난감한 입장에 놓이리라. 행운의 숫자 : 23, 15

巳

41년생 판단이 섰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53년생 아까워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65년생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정서가 보인다. 77년생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겠다. 89년생 성사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16, 40

午

42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54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희소식을 접하라. 66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변전시키게 되는 극적인 상황이 나타나리라. 78년생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2, 24

未

43년생 일정한 곳에 안전하게 뒤야만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55년생 문제점이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 67년생 상충적인 관계에 신경 써라. 79년생 해독은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5, 33

申

44년생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하겠다. 56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니라. 68년생 한 번 만에 끝낼 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80년생 여자를 두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0, 63

酉

45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57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될 것이다. 69년생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81년생 기회는 나는 새처럼 아무 곳에서나 내려앉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4, 61

戌

46년생 직접 실행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본격적으로 시도해도 된다. 70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82년생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58, 76

亥

47년생 핵심 관건을 놓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9년생 과욕은 퇴보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71년생 표리가 부동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83년생 완성도의 차이로 인해서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8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